

회암사지부도 '무학대사부도' 로 이름 바뀐 (가칭)

무학대사의 사리가 봉안돼 있는 '회암사지부도(보물 제388호)'의 명칭이 변경된다.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무학대사의 것이 분명한 부도를 '회암사지부도'로 부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명칭변경을 요청한 봉선사주지 절안, 회암사의 분사의 민원을 수용하기로 결정, 명칭변경 추진 계획을 최근 봉선사측에 전했다.

바뀐 이름에는 '양주회암사무학대사부도(가칭)'와 같이 '무학대사'가 명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계기로 부도의 주인공이 명확해지도록 불교고 '○○사지부도'라 불리는 부도들의 명칭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부도란 고승의 가르침을 기리기 위해

의 자취는 드러나지 않았다. 이 점을 아쉬워한 봉선사측은 △부도의 주인공이 밝혀질 경우 그 승려의 이름을 명칭에 반영하는 것이 명칭의 원칙이라는 점 △3대화상 가운데 '무학대사'만이 문화재명칭에서 빠져있는 점 △회암사지의 '회암사지부도'와 '경기유형문화재 제52호'와 혼동의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지난해 3월경 양주시청에 명칭변경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자 5월경 다시 문화재청에 민원을 냈고, 해를 넘겨 7월 5일에서야 문화재청으로부터 민원 수용결정 사실을 통보받았다. 다만 정확한 명칭은 현재 작업 중인 '문화재명칭부여기준' 마련 후, 확정될 예정이다.



1963년 보물로 지정되면서 32년간 '회암사지부도'로 불려온 무학대사의 부도가 머잖아 바른 이름을 갖게 될 전망이다.

정되지 않았으므로, 명칭이 확정되고 고시되기까지는 앞으로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이 명칭변경을 원칙적으로 수용한 것은 문화재 제자리 찾기 차원에서 좋은 선례라니 지적이다.

본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무학대사부도처럼 주인공이 분명히 밝혀져 있음에도 '○○사지부도'로 불리는 부도는, 지정문화재로 관리되는 부도(부도군 포함) 133건 가운데 6건이나 된다. 하동 쌍계사부도(보물 제380호), 양양 선림원지부도(보물 제447호), 석조부도(보물 제351호, 이화여대 소장), 강릉 골산사지부도(보물 제85호), 울진 불영사부도(경북문화재자료 제162호), 천안 광덕사부도(충남문화재자료 제253호) 등이 이에 해당한다.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따르면 쌍계사부도의 주인공은 우리나라 범패의 선구자로 평가되는 진감선사며, 선림원지부도는 홍각선사, 이화여대소장 석조부도는 대경화상, 강릉 골산사지부도는 범일국사, 불영사부도는 양성당선사의 것이다. 또 광덕

사부도는 진산화상의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고승의 당호를 문화재 명칭에 반영하는데 무관심한 문화재청의 태도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무관심하기는 불교계 역시 마찬가지다.

이 같은 무성의한 이름붙이기의 결과, '석조부도'라는 똑같은 이름의 부도가 이화여대 1점, 경북대박물관에 2점(보물 제135·258호) 등 총 3점이나 되는 웃지 못할 상황도 빚어진다. '광덕사부도'라는 이름 또한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진산화상의 부도 외에도 충남유형문화재 제85호로 지정된 부도군에도 사용되고 있다. 이쯤이면 문화재명칭으로서의 기능마저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봉선사의 이번 민원을 주도한 해문 스님은 "고승 대덕의 부도에 바른 이름을 찾아주는 것은 사찰의 역사를 바로세우는 작업에 다른 아니다"며 "불교계가 부도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익순 기자 info@buddhapia.com

봉선사 지난해 민원제기... 문화재청서 수용 주인공 확실한 부도, 명칭 변경 이어질 듯

사리를 모셔 조영한 승탑이므로, 이름에 주인공을 명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특히 문화재로 지정된 부도의 주인공은 선문의 개산조를 비롯해 한국불교사의 대표적 고승대덕이라는 점에서 그들의 당호는 사찰의 전통과 특성을 드러내주는 상징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개칭이 결정된 무학대사부도를 소유하고 있는 회암사주지 각원에는 고려패·조선초의 대표적 승려인 지공·나옹·무학스님의 부도가 모여 있다. 하지만 '지공선사부도(경기유형문화재 제49호)' '나옹선사부도(경기유형문화재 제50호)'와 달리 무학대사부도만은 '회암사지부도'로 불림으로써 오랜 기간 회암사에 주석하며 왕사의 역할을 수행한 무학대사

봉선사측이 명칭변경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내는 데만도 1년 남짓한 기간이 소요된 데서 알 수 있듯 문화재의 명칭변경은 쉬운 일이 아니다. 변경을 요구하는 측은 주장을 확증할 만한 자료를 확보·제시해야 하고, 이를 심의하는 문화재청 또한 문화재위원회를 열어 그 자료의 타당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명칭변경의 절차는 문화재지정 절차와 거의 같다. 즉 변경요구를 접수하면 문화재위원회가 이를 검토한다. 여기서 명칭변경이 결정되면,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해 의견을 수렴한다. 수렴기간이 지나면 다시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변경 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는 일련의 절차를 밟게 된다.

무학대사부도의 경우 아직 명칭조차 확

문화재청, '문화재명칭부여기준' 만든다

일관성 통일성 주기로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이 '문화재명칭부여기준'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화재청 한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문화재명칭부여기준'이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초안이 마련된 상태다. 이 같은 작업은 그동안 일정한 기준 없이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그때그때 명명되다보니 문화재의 명칭에 일관성

이 없고, 통일성이 부족하다는 인식에서 시작됐다.

부도의 경우만 보더라도 그 같은 문제는 쉽게 찾을 수 있다. 가령 사리탑의 경우 부도와 구별이 명확하지 않아 혼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범주사세존사리탑(충북유형문화재 제16호)과 같이 석가모니의 사리를 모신 탑을 사리탑이라 명명하는 것지만, 장유화상 부도 또한 사리탑(장유화상사리탑)으로 불리고 있다.

'부도'라는 명칭의 적절성 여부도 논

제다. 부도는 불자나 승려를 뜻하는 말로 사용된 경우가 많으며, 석가모니의 사리를 모신 불탑을 부도라고 표현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부도는 스님의 사리를 모신 탑에 한정된 명칭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대안으로 전문가들은 '승탑'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만 문화재명칭에 사용되지 않고 있다.

문화재청 채수희 사무관은 "문화재명칭의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이 아니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 중에 있다"고 말을 아끼며 "적절한 시기에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준 교수의 과학 기술과 불교 <19>

시·청각과 벽암록 한 구절

우리가 가장 많이 암송하는 반야심경에 '무(無)안이비설신의'라는 구절이 있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그리고 뜻을 내는 기관인 눈·귀·코·혀·몸(피부), 그리고 뇌 신경조직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참으로 기막힌 말과 같이 들린다.

게다가 이 기관이 느끼는 색·성·향·미·촉·법 또한 없다고 선언하니 더욱 놀라울 뿐이다.

눈과 귀는 우리의 인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기관이다. TV를 볼 때나, 전축, 핸드폰 모두 눈과 귀를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는다. 눈과 귀의 지각 메커니즘은 매우 흥미롭다.

외부 세계가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방식은 파동을 통해서다. 파동이란 파

그렇다면, 과연 반야심경에서 주장하는 '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눈과 귀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보가 없다는 것일까. 우리가 듣고 있는 방식의 한계를 일깨워주는 것일까. 아니면 집착하는 '나'라는 물건이 없다는 과학을 가르쳐 주는 것일까.

관세음보살은 듣는 것(파도소리)을 통해서 깨달음에 이른 위대한 성자다. 파도소리를 예로 들어보자. 파도소리가 아니어도 좋다. 밀려들어오는 소리, 다시 물러나가는 소리, 그 사이에 존재하는 빈 공간이 연속해서 들려온다. 우리는 밀려들어오는 파도소리를 들으면서, 다시 나가는 파도소리를 예측한다. 밀려들어오는 파도소리를 명료하게 듣고 있다기보다는.

빛과 소리의 파동에 눈과 귀 주로 반응 듣는 순간 어느새 집착하는 나 끼어 들어

도와 같이 높낮이가 있는 모음을 띠고 있다. 빛이나 소리 모두 파동의 모습으로 다른 지역으로 에너지를 전달하고 있다. 주파수는 이 높낮이가 1초에 몇 번 정도 변화하는가이를 헤르츠라고 한다를 나타낸다. 빛의 주파수는 약 10의 15제곱 헤르츠 정도이고(1억의 약 100만 배)이고, 소리의 주파수 중 약 16헤르츠부터 20킬로 헤르츠 정도를 귀로 들을 수 있다. 재미있게도 외부 세계에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파동의 주파수 영역을 보면, 대부분 빛과 소리의 영역에 있다. 즉, 태양에서 만들어지는 빛, 그리고 자연에서 만들어 지는 소리에 맞추어서 눈과 귀가 주파수에 반응하도록 진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밀려들어오는 파도소리와 함께 듣는 내가 같이 깨어있어 있음을 발견한다. 하나의 파도소리에서 그 소리에서 '집착하는 나'가 같이 끼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관세음보살은 바로 듣는 것으로부터 항상 존재하는 집착하는 '나'에서 해방됨으로써 부처를 발견했다고 할 수 있다.

<벽암록> '제46칙'에는 빛소리를 들으면서 문답을 주고받는 경청 화상과 제자가 등장한다. 무대는 아마 요즘과 같이 무더운 여름이었을까. 내리는 빗소리를 들으면서, 제자에게 묻는다. "문밖에서 들리는 소리는 무슨 소리인가?" "빗방울 소리입니다." 이에 스승이 질책한다. "중생이 전도되어 바깥



제18기 전생·빙의/영치유법 특별강좌!

전생(前世), 사주팔자(四柱八字), 빙의(憑依)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적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최면·전생·빙의/영치유법 강좌는 사례중심의 시청각 교육 등 많은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실기 위주로 지도하여 그 해답을 통쾌히 풀어 드립니다.

교육내용	과정별 교재 및 실습테잎 제공
빙의 치유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빙의 진단법 → 빙의명확인 → 영가와의 대화 → 영가친도 → 친도확인 → 재접신 방식 영치유법 악령제압법, 제3자를 통해 빙의된 사람의 영가를 불러내어 대화를 통한 원격제령 친도법 신도가 자기 몸 속의 영가와 대화할 수 있고 영가가 떠나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다.
전생요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생과 현생은 천문보다 질긴 연결고리로서 전생체험을 통한 인과응보의 핵심원인을 찾아 전생의 업장을 해소하여 현세에 얽힌 인간관계와 원인을 심리적, 신체적으로 통의 단서를 찾아 스스로 지혜로운 미래의 삶을 찾게 한다.
정통사주명리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주로 조상 영가, 빙의 보는 법..... "귀문관찰"은 정신병이 오기 쉽고..... "백호대살"은 형사, 악사로 저승사자가 따라 다니며, "허약한 사주"는 빙의되기 쉽다.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 지는데.....전생에 남의것을 많이 빼앗은 자는 이생에서 재물도, 마누라도 빼앗기는 팔자이니 이런 사주 "군것쟁이".....
최면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면의 원리, 자기최면, 타인최면 유도법, 최면 심리치료, 자율훈련, 최면 명상법 성격개선, 자신감 고취, 열등감 극복, 공포증 소거법, 집중력 기억력 초강화법 슬픔 너머 집착에서 벗어나는 후최면 전망법, 자연 치유력 활성화법 등

빙의(憑依)란? 흔히 귀신들림으로 말해지며 영혼이나 강력한 힘, 절대적 신의 힘이 사람에게 침투하여 삶의 전반이나 특정 증상에 영향을 주고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런 사람들은 흔히 "내 안에 누가 있는 것 같다", "내가 나를 조정할 수 없다", "누군가 내 머릿속에서 뭐라 얘기하는 것 같다"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등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이상한 행동, 과벽, 정서불안, 우울증 등의 증세를 보이기도 하며, 때로는 환청이나 환각, 악몽, 가위눌림 등도 시달리기도 하고 빙의 영가의 생전시 질병이나 사고 부위에 같은 증상으로 고통을 호소하기도 하는데 세계 보건기구(WHO)국제 질병 분류에는이를 포제션(Possession)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또한 원인 모를 불임시에도 낫게 영가를 의심해봐야 한다.

본 강좌 개강 8월 4일(매주 목요일) 오전10시~18시까지 7회 과정

- ▶ 신청요령 : 전화접수 및 방문신청
- ▶ 교육비 : 200만원
- ▶ 입금계좌 : 조흥은행 591-01-008086
- ▶ 예금주 : 한국외식개발원

교육이수 후 무료 재수강 및 지속적인 자문지원

통신교육 방식

- ▶ 전생·빙의/영치유 전체교육내용을 실황 녹화한 비디오테이프를 매주 1회(2시간용 3개씩)우송(7회과정 비디오 테이프 총 20개)
- ▶ 실습능력 점검 및 질의응답 등 보충교육을 위해 1회 분원에 출석수업
- ▶ 특전:수료후 전생상담사 이수증 발급 및 한국전생빙의연구회 가입 후 정기적 보충교육 실시
- ▶ 교육비 : 200만원



원장 상담학 박사 임재형

주최 : 한국 전생·빙의연구원
주관 : 한국 최면과학원 www.hypnosis114.com

※ 본 교육 내용을 보다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홈페이지를 참조 하시거나 1만원을 송금하시면 공개강좌 비디오 및 안내 자료를 발송하여 드립니다.

8월 1일 오후 1시~4시까지 **무료공개강좌**

한국생활최면심리학회 회장 대한 최면심리학회 부회장 한국치유학회 대학원 겸임교수 한국치유학회 대학원 겸임교수 SBS백만불 미스터리, V.세상 속으로, KBS 무한지대Q, MBC TV특종놀라운세상, iTV.CMB등 출연 인천교육대학교, 충남대학교, 청주대학교 의, 디수 대학 공무원 연수원, 기업체 등에서 강의